

군산, 농업분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시 농기센터,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옛 106연대본부 부지에 매매계약 체결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가 농업분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과 군산시대야면 보덕리 옛 106연대본부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을 마무리 했다. 이에 군산시는 민선 7기 역점추진 사업 중 하나인 '청년 농업인 임대

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스마트 농업 및 영농창업 활성화 밸리를 조성해 군산 농업의 4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군산시는 공익사업 인정 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등 매입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국방시설본부와 수차례 부지 매입관련 협의를 통해 국방부 부지 매입계약의 성과를 이뤘다.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관계자는 "관·군 협력으로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신속한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상생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아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군산시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의 부지 매매계약 체결은 관·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관·군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자립형 스마트팜 밸리사업이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으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에서 자동 관리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보건소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송학동 신영마을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송학동 신영마을, 벽화마을 재탄생

희망연대 봉사자 약 150여명 참여

익산시보건소(소장 한명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송학동 신영마을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한 송학동 만들기 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3일 신영마을 벽물청소 작업을 시작으로 22 ~ 24일에는 도안 그리기, 5월 25일 1차 채색작업 6월 1일 마무리 작업 및 코팅 작업을 거쳐 신영마을은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재탄생됐다. 특히 이 벽화그리기 작업에는

보건소 직원 및 신영마을 주민, 희망연대 봉사자 약 150여명이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또한 5월 28일에는 건강한 송학동민들기 운영협의회 위원 및 송학동 주민 70여명이 벽화마을 걷기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걷기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우리 마을 담벼락에 이렇게 멋진 벽화를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을이 깨끗하고 환해져서 우리 마을도 같이 밝아지는 기분이 들고 매일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LH 토지구택공사와 행복주택 건설 협약

160억원 투입 150호 규모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에 80% 공급

군산시는 3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앙동 일원에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 시가지의 재생과 청년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주택 및 영상미디어센터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분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LH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신영시장 인근에 위치한 (주)화진건설 소유 부지(5만6000㎡)를 LH에서 매입해 14층 150호 규모로 1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에게 80%, 노인층과 그 외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해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배우고 소통 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와 실내체육시설 등의 공동이용시설 공간이 마련되며,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실시계획이 마무리 되면 2020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선정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활성화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추진하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12개의 단위사업과 LH 행복주택을 포함한 29개 부문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며 국립과학관 건

립, 문화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등 10개 부처 협업사업을 포함하면 천억 원 이상이 투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철거를 기본으로 하던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예전 골격은 유지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특징인 쇠퇴하는 지방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건립 예정인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문화주택으로 군산시 청년층의 주거·참여·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해경, 수상레저분야 점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일 군산해경은 6월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여간 관내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과 수상레저기구, 위험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연중 사업장 1곳과 이 기간 중 사업장 개설 또는 신규 사업장 신청 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해경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은 총 3곳으로 1곳은 연중, 2곳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사업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 해양경찰학과 교수·대학생, 일반 국민 등이 해양경찰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농업 분야 발전 국제교류 확대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추진과 함께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 교류를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군산시와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시는 농업정책, 농업기술, 농업교육 등 농업 제반 분야의 교류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부지사와 아사카 시장 등 관계자가 군산시와의 산업 및 농업 등 기술협력 우호증진을 위해 방문하면서 이

뤄졌다. 아사카 시장 등 일행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군산맥아 생산설비 등을 둘러보고 농업분야에 대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농업인적 교류 우선 추진 ▲농업정책, 농업기술, 농업인 전문교육, 농식품 가공분야 단계적 확대추진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행정적 지원 ▲농업혁신 적극 협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난달 31일 군산시와 우즈베키스탄 아사카시는 농업 제반 분야의 교류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보건소,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

익산시보건소(소장 한명란)가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기 못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DNA시료를 채취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전국 보건소가 함께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고 있다. 전사자 유해를 찾기 못한 친·외가

8촌까지의 유가족은 전사자의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한 가지를 구비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채취 후 DNA 시료의 검사기간은 10~12개월 가장 소요되며 1회 채취로 유해의 DNA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해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가격폭락' 대비 양파 긴급 출하정지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올해 양파 과잉 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양파 증만생종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를 취해 가격을 안정시

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장 격리될 증만생종 면적은 6만7862㎡로 익산원협과 여산농협과 계약 재배한 농가에 해당되며 kg당 382원 (㎡당 2336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